

83년 美国石油業界 收益好轉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全体純益 5% 増加

작 년도의 美国 주요 석유회사들의 收益狀況을 보면(4/4분기 및 연간통계)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진적화했던 전년도에 비해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美国에 본부를 둔 5개 다국적회사들의 82년도 순익은 81년에 비해 거의 1/3이나 떨어졌었지만, 83년도의 순익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103억달러에 달하였다. 순익증가의 대부분은 2/4분기와 3/4분기에 실현된 것이고 4/4분기엔 7% 정도만 좋아졌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12개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영업회사인데, 4/4분기엔 13% 증가했지만, 82년도엔 전년에 비해 1/6가량 감소한 후 83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연평균 4% 정도 감소하였다.

엑슨그룹은 19% 増加

83년도 美国석유업계의 주류는 최대그룹인 엑슨이 대표하고 있는 바, 엑슨은 석유업계의 83년도는 시장의 위급한 변동상황에 대응하여 영업의 구조재편과 합리화를 계속한 한해였다고 표현하였다. 가격약세로 인한 이익감소의 압력은 82년과 83년초의 침체하고 불안한 상황과는 달리 83년 후반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크게 극복되기도 하고 저지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엑슨은 해외의 원유생산증가와 인원감축, 과도설비폐기, 초과탱커처분 등의 능률성 및 생산성 제고조치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 稅後순익이 19% 늘어난 49.9억달러였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사업에서는 82년의 43.8억달러에 비해 51.6억달러를 벌었다. 여기에는 대체로 美国내의 석유 및 가스사업에서 82년과 83년 각각 23억달러씩을 번 것과 해외의 北海, 濠洲, 말레이시아에서 산유량증가로 벌어들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석유탐사 및 생산활동에서 42%나 증가되어 22억달러가 넘었으며, 해외의 下流部門에서 6.68억달러에서 6.82억달러로 약간 증가하였다. 국제해운사업에서는 손실이 1억달러에서 1.24억달러로 늘어났으나, 석탄광이나 여타 에너지사업에서는 이익을 많이 냈다.

엑슨의 非에너지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비록 석유화학에서는 물량증가 및 유가 하락으로 국내외 통털어 82년의 0.93억 달러에서 2.67억달러로 증가했지만, 광업분야 및 릴라이언스 일렉트릭(Reliance Electric)에서는 계속 손실을 기록했다. 후자의 사업은 79년에 번창하고나서 석유산업의 전통적인 사업분야 밖에서 사업다양화가 한창일 당시에 벌이게 된 마지막 사업이었다. 모빌이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를 합병한 것과 같은 기타 조치들도 수익성있는 부대사업이라기 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80년대에 탐사강화 및 기존생산회사의 합병을 통해 석유 및 가스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텍사코가 게티오일을 합병하려는 시도는 가장 최근의 예가 된다.

他메이저의 수익상황

공교롭게도 모빌은 소매판매부문에 경영호전이 가능하였다. 해외석유사업에서 수익이 43%나 났 것과 함께 위 요인은 美國內의 석유사업에서 10% 수익감소된 것과 화학 및 포장산업에서 감소된 것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머크러크(Mukluk)의 시추실패 및 천연가스의 수익성 하락으로 국내의 석유·가스부문은 0.98억달러의 결손을 보았다. 그렇지만 모빌의 연간실적은 다국적회사 중 가장 양호하여 수익이 24% 증가한 15억달러에 달하였다.

소칼(Socal)은 4/4분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연간으로 15% 수익증가율에 15.9억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경영호전은 주로 3월의 원유가하락에 뒤이은, 보다 안정된 시장에 의한 해외석유사업에서 크게 벌어들인 덕택이다. 이 수익엔 재고이익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해외환율의 영

향으로 이익이 증가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텍사코는 5대메이저 중 유일하게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4% 감소하여 12.3억달러에 달했다. 9월말까지는 작년수준이었으나, 4/4분기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머크러크의 시추 실패로 0.67억달러의 비용만 날린 셈이었는데, 이것만 없었더라면 수익이 4/4분기에 12% 증가하고 연간으로 3% 증가했을 것이다. 同社의 美國內의 上流部門 사업수익은 원유가하락으로 떨어졌지만, 下流部門은 정제사업의 신투자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호전되었다. 해외사업은 특히 캐나다 및 인도네시아의 상류부문이 좋아졌고, 정제 및 판매부문은 油價하락의 혜택을 받았다. 텍사코가 칼텍스의 정제 및 판매부문에 참여하여 수익성 향상을 보였지만, 석유화학에서는 反轉되었다.

현재는 가장 작은 메이저인 걸프 오일은 3/4분기에 74%, 4/4분기에 31%의 수익증가에 힘입어 후반기에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연간 9% 증가율

(별표) 美国 석유회사 收益狀況(83)

(단위 : 백만달러)

	82(4/4)	83(4/4)	변동률(%)	1982	1983	변동률(%)
Exxon	1,481	1,625	+10	4,186	4,985	+19
Gulf Oil	226	297	+31	900	978	+9
Mobil	398	445	+12	1,210	1,500	+24
Standard (California)	425	403	-5	1,380	1,590	+15
Texaco	306	256	-16	1,281	1,233	-4
小計(5대메이저)	2,836	3,026	+7	8,957	10,286	+15
Amerada Hess	44	57	+30	169	205	+21
Atlantic Richfield	434	419	-3	1,676	1,550	-8
Getty Oil	173	239	+38	692	494	-29
Occidental Petroleum	2	246	+12,200	156	567	+263
Pennzoil	51	58	+14	189	164	-13
Phillips Petroleum	155	247	+59	646	721	+12
Shell Oil	438	549	+25	1,605	1,630	+2
Standard (Indiana)	415	459	+11	1,826	1,868	+2
Standard (Ohio)	464	324	-30	1,880	1,510	-20
Sun Co	151	61	-60	537	453	-16
Superior Oil	24	64	+167	223	242	+8
Unocal	225	178	-21	804	626	-22
小計(12개社)	2,576	2,901	+13	10,403	10,030	-4
總計(17개社)	5,412	5,927	+10	19,360	20,316	+5

에 9.78억달러의 이익을 냈다. 그러나 여기엔 4/4 분기에 유럽의 하류부문을 처분해서 얻은 非經常的 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순익은 41% 감소한 3.74억달러였다. 가장 고무적인 일은 국내외적으로 석유탐사 및 생산, 화학분야의 이익으로의 역전, 광물사업의 고수익성 등으로 12%의 순익증가가 실현된 사실이다.

其他 会社들의 收益狀況

기타 주요 석유회사들은 대체로 하류부문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알래스카 시추에 참여한 회사들은 이익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Sohio는 머크리크試鑛에 가장 큰 持株会社여서 1.25억달러 비용이 들었으며, 또한 초기의 할당량 이상의 초과생산으로 다른 생산회사에 보상해 주기 위해 연중내내 축소생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Prudhoe灣 油田에 대한 82년 10월의 새로운 결정으로 곤란을 겪어야 했다.

탐사 및 생산의 稅前이익은 22% 줄어든 28.5억 달러가 되었고 순익은 20% 줄어든 15억달러였다.

Arco는 원유가하락 및 석유제품의 마진감소로 8%가 줄어 15.5억달러였다. 대조적으로 셸 오일 및 인디애나 스탠다드(Amoco)는 2% 증가를 보여 각각 16.3억달러 및 18.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Sohio 및 Arco에 비해서 사업다양화 및 하류부문에 중점을 둔 탓이다. 위 4個 회사 모두 엑스를 제외한 「5大 메이저」와 동등한 규모의 이익을 올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中小석유회사도 4/4분기 및 연간실적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Unocal 및 Sun Co. 兩社는 판매부문의 부진 및 해외의 非產油사업의 원가상승 등으로 타격을 받아 순익이 82년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Sun Co.는 장래의 사업개선을 위해 구조재편성과 합리화 단행을 실시한 4/4분기에 全的인 손실을 보았다*

〈Petroleum Economist 84. 3〉

□ 產油國動向 □

OPEC產油量, 계속 減少趨勢

2 月平均 1,770萬b/d로 推定

상당수의 OPEC회원국들이 그들의 國別쿼터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總產油量은 작년 12월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2월현재 總生產上界限인 1,750만b/d를 약간 넘어서고 있다.

런던에 소재한 投資證券會社인 Grievson Grant & Co.에 따르면 2월평균 OPEC總產油量(NGL除外)은 작년 12월의 1,850만b/d, 금년 1월의 1,790만b/d에서 1,770만b/d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UAE,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에콰도르, 가봉, 카타르 등 8개회원국은 증산을 단행하고 있으나 사우디, 이란 등 大產油國들의 產油量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에 520~540만b/d 수준에 달한 사우디

產油量은 1월에는 500만b/d, 2월에는 470만b/d까지 내려갔으며, 이란의 產油量도 日本會社들의 長期導入契約更新 거부로 작년말 240만b/d수준에서 현재 210만b/d로 떨어졌다.

그러나 OPEC쿼터를 50만b/d정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현재쿼터보다 10만 높을 140만b/d를 생산하고 있으며, 次期 OPEC定期總會가 개최되는 7월까지의 產油量을 160만b/d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rievson Grant社는 OPEC의 금년도 1/4분기 평균산유량은 總生產上界限보다 단지 10만b/d 높을 1,760만b/d에 달할 것이며, 非需期인 2/4분기에는 약 1,650만b/d로 감소될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